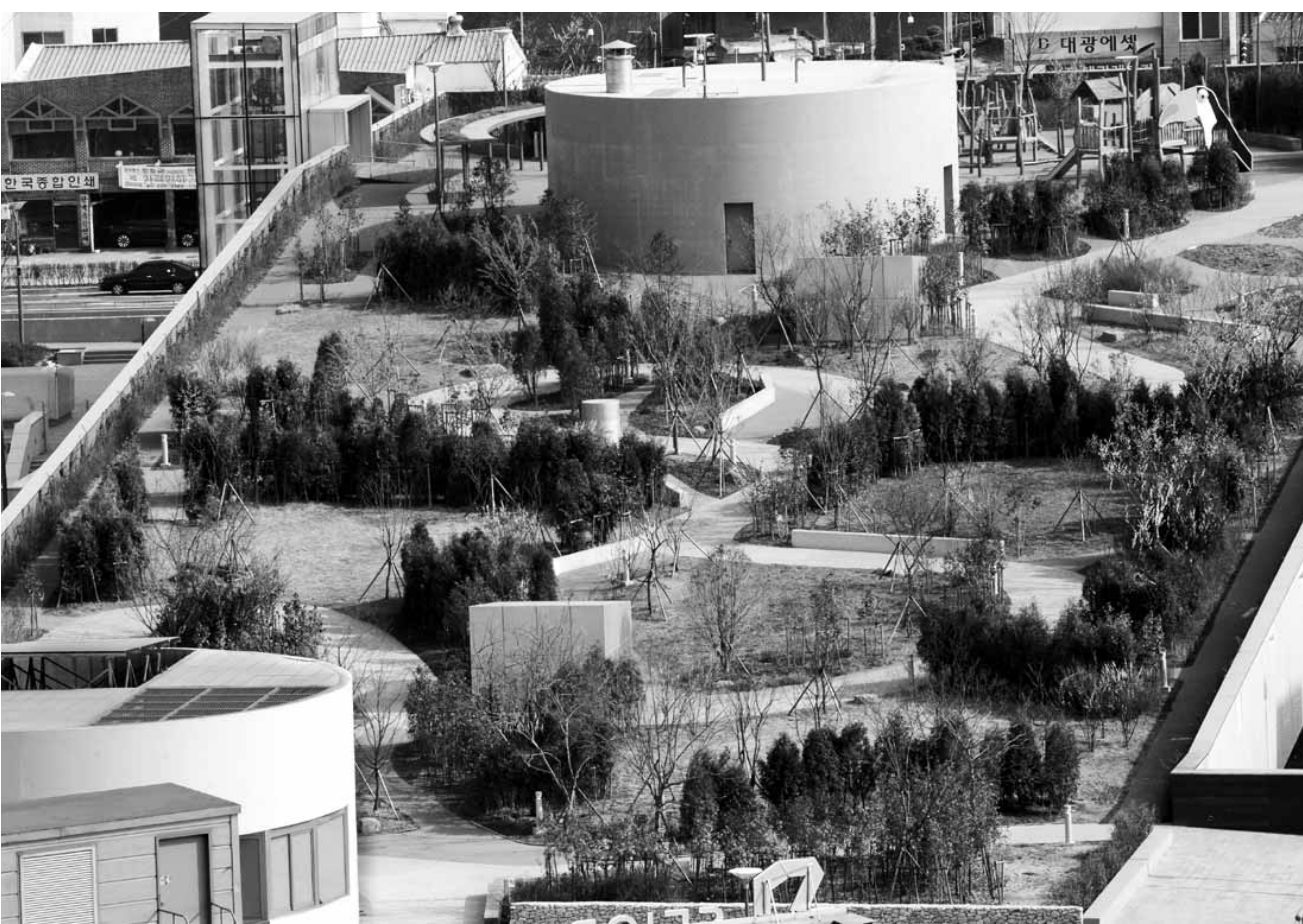


문화전당 정원 왜 작은 나무들만? 건물 보호 위한 전략적 선택



30일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건물 지붕 위에 키가 작은 나무 위주로 옥상정원이 조성돼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무 번성하면 양크르와트처럼 건물 파손 될 우려

‘옥상정원’ 개념 하중 크지 않은 키 작은 관목류 심어

왜색시비 얘기동백은 귀화식물... 열린 시각으로 봐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원이 왜 이렇게 불품없지.” “일본산 나무가 많아 왜색(倭色) 느낌이 난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문화전당의 정원조성에 고개를 가우동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 나무의 키가 크지 않아 질 만한 그늘이 없는데다 문화전당 부지 규모(13만4815㎡)에 견줘봐도 나무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정원이 돌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화전당 옥상정원은 역설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다.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일부 건물에 옥상정원을 도입했으나,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를 심는 데 그쳤다.

문화전당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지하에 있는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건물의 지붕으로, 거대한 ‘옥상화분’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이 공간을 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저 70cm에서 최고 140cm까지 흙을 쌓았다. 4만2487㎡ 규모에 달하는 토양층 조성에만 무려 8억1400만원이 들었다.

이처럼 지반이 얇아 큰 나무를 심는데 한계가 있어 문화전당 옥상정원에는 키가 작은 관목류(灌木類)를 많이 심었다고 한다. 관목은 보통 사람의 키보다 작게 자라기 때문에 성장해도 문화전당 건물에 하중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는 문화전당 안팎에 진달래 등 45종 6만6103 그루의 관목이 심어져 있어도 수목이 많아 보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문화전당에 식재된 교목(1961주)이 적은 사정도 이와 같다. 소나무 등 교목의 대부분은 지하에 건물이 없는 문화전당의 외곽에 심어져 있다.

일본 원산으로 알려진 얘기동백(6880 그루·관목)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봄에 꽃을 볼 수 있고 최고 성장해도 키가 2m 안팎이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품종이란 점이 작용했다. 그래서 얘기동백의 수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조팝나무(6815 그루), 홍가시나무(4837) 산철쭉(4050)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왜색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주명철 동신대 교수는 “얘기동백은 귀화식물로 봐야하며 일제 강점기 때 일본학자들이 우리식물의 원산지를 왜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원산지일 수 있는 품종”이라며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교류가 이뤄져야 할 공간에 외국이 원산인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은 ‘열린 시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전당 옥상에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 특별한 장치도 설치됐다. 수많은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 흙 속에 물을 공급하는 6억9800만원 짜리 관수(灌水)시설을 묻어놓았다. 나무 뿌리가 성장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7억1200만원을 들여 3만7100㎡에 달하는 공간에 방근(防根) 시트를 깔았다. 나무가 번성해 캄보디아 양크르와트처럼 건물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영기기자 penfoot@

‘세월호 참사’ 진도군민 피해 얼마나 구제 받을까

오늘 배·보상 심의위 첫 회의...郡 자체 조사액은 153억원

세월호 사고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갖고 피해 배상 및 보상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유류 피해, 어업 손실을 입은 진도군민들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해양수산부와 진도군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영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에 의한 인적 피해가 476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구조자 172명), 화물 피해는 2142t(차량 185대 포함)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류 오염은 세월호 내에 214t가 저장돼 있었으며, 일부 선박 내에 남아 있고 대부분 유출됐다는 가정 하에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만간 설명회 후 어

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오는 4월8일과 9일 진도에서 유류 오염 피해와 어업인 손실 보상과 관련 설명회를 갖고, 4월 중순부터 피해 신고를 받으면 피해 규모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도군 주민피해대책위가 용역업체 등에 맡겨 산출한 유류 오염 피해 규모는 69억원, 진도군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어업 손실 규모는 153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모두 근거가 불명확한 실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행정부시장 문인씨 내정

광주시 차기 행정부시장으로 문인(57·사진) 행정자치부 정무장서관리소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를 하고 차기 행정부시장 인선에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문 소장에 대한 인사검증에 들어갔으며, 내달 중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소장은 광주시 재직 중 토목직 최 초로 자치구 부구청장과 자치행정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초 오형국 현 행정부시장 후임자를 추천해 달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따라 부시장 후보자에 대해 행자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4개월 가까이 인사가 지연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빅오쇼’ 가동

내달부터 아쿠아리움 등

다음달 4일부터 ‘빅오(BIG-O)쇼’ 등 여수박람회장 내 공연이 모두 선보인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본격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빅오(BIG-O)쇼’를 비롯한 박람회장 내 관광문화 자원을 4월부터 모두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빅오쇼’는 워터스크린, 분수, 화염, 레이저, 안개 등을 활용한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난해 15만 명이 관람하는 등 여수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빅오쇼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슈퍼 스노우’ 효과를 추가로 선보이는 등 빅오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오후 3시, 3시 30분, 4시 등 세 차례에 걸쳐 해상분수쇼를 운영해 박람회장 주변공원을 산책하는 관광객과 아쿠아리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스카이플라이(공중하강 체험) 이용객들에게도 추가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도시공사·디자인센터 부적정 업무 예산 환수 등 조치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디자인센터에 대한 인사·회계·토목·건축 분야 감사에서 부적정 업무추진 사례가 적발돼 예산 환수·감액, 기관 경고 등을 받았다. 광주시는 30일 “광주 도시공사에 대

한 종합감사결과 모두 19건을 적발해 예산 등을 낭비한 5억6600만원을 환수·예산 감액 조치하고, 기관 경고와 관련 직원 8명에 대해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지난해 8월 통합 3급 40명의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를 확정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행정 3급 A씨의 순위가 4순위에서 3순위로 올라가고 기술 3급 B씨의 순위가 3순위에서 4순위

로 밀리는 등 모두 22명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재)광주디자인센터도 계약, 회계, 인사분야 등에서 총 8건의 부적정한 업무 추진사항이 적발돼 지체상금 등 250만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직원 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을 신분상 조치하도록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